

늘푸른 물결

통권 284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5 2023



2023년 세계 지구의 날 기념 행사

지난 4월 15일 어름수변공원에서 지구의 날 기념 당진천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당진천도 걷고 체험행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당진시의회, RE100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환경운동연합 전국 신입활동가 연수, 당진 현장 방문



당진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불매 전국 공동행동

- ▶ 발행일 2023. 5.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유형민, 박희선,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kfem.or.kr

- 3 **이달의 시**
| 어머니 / 나훈아
- 4 **지역환경초점1**
| 당진화력, 전국 석탄화력 중 온실가스 2위, 대기오염물질 3위
- 6 **지역환경초점2**
| 호수공원 어디에?...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건
- 8 **지역환경초점3**
| 당진시의회, RE100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 9 **지역환경초점4**
| 지구의 날 기념 당진천 벚꽃길 걷기대회
- 10 **지역환경초점5**
| “김태흠 충남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대응하라”
- 11 **지역환경단신1**
| 당진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불매 전국 공동행동
- 12 **지역환경단신2**
| “산단 조성 갈등 최소화하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 책임져야”
- 13 **지역환경단신3**
| “보령화력 5.6호기 수명 연장? 당장 폐쇄해야”
- 14 **지역환경단신4**
| 환경운동연합 전국 신입활동가 연수, 당진 현장 방문
- 15 **전국환경초점1**
|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 16 **전국환경초점2**
| 환경단체 “배덕호 물관리위원장, 정권 모리배 자처하면 국민 심판”
- 18 **전국환경초점3**
|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환경·노동단체 반발 확산
- 19 **4월 살림살이**
- 20 **4월 활동소식**
- 22 **5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어머니

나훈아

어니 어니 워째서 울어왔소
나 여그 있는디 왜 운당가
어니 어니 뉘 땀시 날 낳았소
한 많은 이 세상 어째 낳았소
들리지라우 어니 들리지라우 어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어니 어니 워째서 불러왔소
눈앞에 나 있는디 어째 날 찾소
어니 어니 무등산 꽃 피거든
한 아름 망월동에 심어주소
들리지라우 어니 들리지라우 어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어니 어니 워째서 잠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제
어니 어니 나 잠들고 싶은디
잠들게 자장가나 불러주소
들리지라우 어니 들리지라우 어니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인자 그만 울지 말랑께

작가소개

가수 나훈아

2020년에 발표한 '어니'란 노래는 실제 1987년에 제작된 5.18 희생자 추모곡이다. 나훈아는 1987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며, 죽은 자식들의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로 직접 작사, 작곡했다. 나훈아는 곡 제작 이후 광주 망월동 5.18묘역(현 구묘역)을 직접 참배하고, 광주 MBC방송국에 '어니'노래 카세트 2,000세트를 제작하여 희생자 유족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권의 방해로 실패했다. 33년이 흘러 2020년에야 이 노래는 발표했으며, 이러한 속사정을 나훈아가 직접 글로 작성해 앨범 속지에 수록해두었다.

전국 석탄화력 중 온실가스 2위, 대기오염물질 3위

당진화력, 2022년 온실가스 2,335만톤, 대기오염물질 6,156톤 배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이하 당진화력)의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2,335만톤, 굴뚝자동 측정기(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6,156톤으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2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당진화력은 전년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3.8%, 대기오염물질 5.6% 감소했다.”며 “환경설비 개선사업으로 1호기와 4호기의 가동을 중단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당진화력소의 2022년 발전호기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우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당진화력은 23,352,27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23,733,000톤을 배출한 태안화력발전소에 이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2위를 기록했다. 당진화력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 배출량 24,281,332톤에 비해 929,061톤, 3.8%가 감소했다.

또한 당진화력은 지난 해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6,156톤을 배출해 8,182톤을 배출한 태안화력, 7,136톤을 배출한 하동화력에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위를 기록했다. 당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도 배출량 6,523톤에 비해 367톤, 5.6%가 감소했다.

당진화력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한 것은 당진화력 1호기와 4호기가 환경설비 개선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영향이다. 당진화력의 발전설비 이용율은 2022년 52.82%로 전년도에 비해 2%가 감소했다. 그러나 가동이 중단된 1호기와 4호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발전기의 이용율은 62.86%로 코로나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진화력은 지난해 1,100만톤의 석탄을 사용해 2,335만톤의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런데 18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평균보다 기온상승 1.47배, 표층수온 상승 2.56배 빠르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상황”이라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더 단축해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 사무국]

석탄화력발전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지역	발전소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톤)
1	충남	태안화력	23,733,000
2	충남	당진화력	23,352,270
3	인천	영흥화력	20,753,618
4	경남	하동화력	19,184,731
5	충남	보령화력	12,074,141
6	충남	신보령화력	10,036,063
7	경남	삼천포화력	9,974,638
8	강원	삼척화력	9,244,469
9	충남	신서천화력	3,713,906
10	전남	여수화력	3,064,377
11	강원	동해화력	1,854,510
	강원	북평화력(민자)	비공개
	경남	고성하이화력(민자)	비공개
	강원	강릉안인화력(민자)	비공개

[출처 : 정보공개청구 자료]

2022년 굴뚝자동측정기(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	지역	발전소	20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합계
1	충남	태안화력	289,411	3,882,169	4,010,295	8,181,875
2	경남	하동화력	247,754	3,568,564	3,319,422	7,135,740
3	충남	당진화력	325,543	3,272,546	2,558,381	6,156,470
4	인천	영흥화력	128,209	2,579,950	1,863,676	4,571,835
5	경남	삼천포화력	113,785	1,432,044	1,730,346	3,276,175
6	충남	보령화력	155,887	1,531,657	1,059,753	2,747,297
7	경남	고성하이화력(민자)	26,513	1,241,885	756,650	2,025,048
8	강원	동해화력	15,763	1,263,349	398,494	1,677,607
9	강원	삼척화력	110,776	492,104	855,525	1,458,405
10	충남	신보령화력	39,308	790,922	479,383	1,309,613
11	강원	북평화력(민자)	35,144	331,315	580,840	947,299
12	전남	여수화력	16,886	55,436	510,510	582,832
13	충남	신서천화력	12,639	119,911	206,565	339,115
14	강원	강릉안인화력(민자)	4,508	55,775	32,281	92,564

[출처 : 정보공개청구 자료]

호수공원 어디에?...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건

우두동·대덕동·수청동 3가지 안 제시
20만 평에서 4만~5만 평 수준으로 축소
100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



확보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진시가 지난해 12월 도심 속 당진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상지 선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한 가운데, 지난 달 용역이 마무리 됐다. 이에 시민들에게 호수공원 후보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당진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지난달 28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중략)

1안 - 우두동 당진2·3지구 인근

도심 속 당진호수공원 대상지로 △1안: 우두동(우두교와 당진하수종말처리장 사이) △2안: 대덕동(호반써밋 건너편 당진천 일대 농림지역) △3안: 수청동(장춘담개장 뒤편 농림지역)이 발표됐다. 당초 오성한 당진시장이 20만 평을 공약했던 것에서 약 1/4~1/5 수준으로 면적이 축소됐으며, 소요비용은 세 가지 안 모두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대덕동과 수청동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체에 협조할 것인지 해제 가능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00억 규모의 사업비

1안(우두동 337번지 일원)의 경우 우두교와 당진하수종말처리장 사이에 있는 우두동 일대로 당진2지구와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다. 특히 당진하수종말처리장과 가까워 재이용수 및 복류수를 활용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야트막한 수경산이 위치해 있어 이를 활용한 인공폭포 설치가 제안됐다. (중략)

하지만 아직 예정 단계에 있는 당진3·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체될 경우 공원 및 진입도로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전체 공원면적은 13만9000㎡(약 4만2100평)으로, 호수면적은 4만800㎡(약 1만2300평)이다.

2안 - 대덕동 호반써밋 건너편

2안(대덕동 1309번지 일원)의 경우 수청2지구 호반써밋아파트 건너편 당진천 일대다. 당진농협 경제사업소와 E1 LPG충전소 뒤편으로, 한옥카페 차차 인근 농림지역이다. 이곳은 수청2지구-대덕수청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기존의 당진천 벚꽃길과 연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이곳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량 설치가 필요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림부와 협의해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개발이 어렵다. (중략) 전체 공원면적은 16만9000㎡(약 5만1200평)로, 호수면적은 5만1700㎡(약 1만5600평)이다.

3안 - 수청동 청구아파트 입구 인근

3안(수청동 418번지 일원)의 경우 당진IC 방향에서 당진시내로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한다. 롯데마트 길건너편 장춘담개장 뒤편 시곡천 일대 농림지역으로 청구아파트 입구까지 부지가 이어진다. 이곳은 시내로 진입하는 초입으로 수청1지구 및

원당동 일대와 가깝다. 전체적으로 산이나 구릉이 없는 평지여서 비교적 넓은 호수 조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곳 역시 농업진흥지역이어서 해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아 사업비 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됐다.

전체 공원면적은 16만7000㎡(약 5만600평)으로, 호수면적 5만8000㎡(약 1만7500평)이다.

호수공원 개장까지 4년 이상 소요

당진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공청회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적·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한 뒤 공원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모든 행정적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2026년 6월경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한 후 2027년 10월경 당진호수공원을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수공원 조성까지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출처: 당진시대 일부 발췌)

구분	1안 (당진2지구 주변)	2안 (수청2지구 주변)	3안 (서해로 북측 주변)
후보지			
위치	당진시 우두동 337번지 일원	당진시 대덕동 1309번지 일원	당진시 수청동 418번지 일원
면적	약 139,000㎡ (약 42,100평)	약 169,000㎡ (약 51,200평)	약 167,000㎡ (약 50,600평)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쪽지역 개발로 균형 발전 가능 재이용수 및 복류수 활용 용이 당진 3·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체될 경우 공원 및 진입도로 연계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청2·대덕수청·당진시청 권역 주민 도보권 이용가능 기존 당진천 벚꽃길과 연계활용 가능 진·출입로 협소 및 기반시설(교량) 추가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진시내 초입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당진시 이미지(랜드마크) 제고에 도움 수청1지구·원당동 권역 주민 도보권 이용가능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 부담
사업비	약 1002억 원	약 1000억 원	약 1034억 원

당진시의회, RE100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1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시의회가 개최한 RE100 동향과 당진시 대응방안 모색 강연회가 개최됐다.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17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회원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E100 동향과 당진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당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지역으로, 지난 2020년 8월에 'RE100' 산업단지(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RE100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당진시의 RE100 산단 추진과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에 나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국내외 RE100 이행과 관련된 정보와

사례를 소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등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강연에 이어 조상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RE100 참여 선언 기업의 진정성과 이행 로드맵', 'RE100 분야에서의 바이오매스 평가', '에너지 다소비형 지역 산업구조에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 '지역 기업의 RE100 참여 촉진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당진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지역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진단하고 기업하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당진신문]

지구의 날 기념 당진천 벚꽃길 걷기대회

당진환경연합, 재생에너지OX퀴즈 등 체험부스 진행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가 '지구에게 한마디' 나뭇잎을 달고 있는 모습

구지구의 날을 기념해 제19회 당진천 벚꽃길 걷기대회가 4월 15일(토) 어름수변공원과 주변 당진천 일대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당진천 벚꽃길 걷기대회는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번영회 △밝은사회 당진클럽 △당진YMCA로 구성된 지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주관해 아



행사에 참가한 시민이 '재생에너지 바로알기' 체험을 하는 모습

침 6시30분부터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 당진천 벚꽃길 걷기대회에서는 걷기행사 외에도 다양한 체험부스가 함께 운영돼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에게 한마디'라는 주제로 나무에 지구를 위한 각자의 뜻을 담은 나뭇잎 달기, 재생에너지 바로 알기 OX퀴즈, 마스크 나누기 행사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바다의 석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 시민단체 주도로 서울 남산에서 처음 지구의 날 행사가 개최된 이래 매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글: 사무국]

“김태흠 충남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대응하라”

충남환경운동연합, 19일 기자회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9일, 오후 2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해 정부와 충청남도의 강력한 대응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9일, 오후 2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민의 생존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중략) “2월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어업생산 동향에 따르면 충남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 어업생산량 비중이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각 시군의회와 도의회, 각 시군단체장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단순하게 반대입장만 밝히는 것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중략)고 요구했다. (중략)

“충남지사, 도민 건강권과 생존권 보호 위해 강

력 대응 촉구해야”

(중략)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만 131만 톤이고 일본의 계획대로 40배로 희석하여 방류할 경우 30년이 걸린다. 하지만 폭발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않는 한 냉각수는 계속 사용되어야 하고 30년 후에는 더 많은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알프스라는 장비를 통해 일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후 40배로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치로 제거 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같은 물질은 물과 함께 그대로 배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중략) “1인당 해산물 소비량 1위 대한민국, 그중 연근해어업에서 전국의 9% 해산물을 조업하고 있는 충남, 김태흠 도지사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김태흠 도지사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당진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불매 전국 공동행동



지난 4월 17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 기업 불매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이 17일 11시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옥시, 애경 불매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조정안이 지난해 마련됐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지역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끝까지 가해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매월 1회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7822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망신고자도 181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해기업의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고작 50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전국피해규모를 추산한 학술논문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자는 모두 894만명으로 이중 건강피해자는 95만명이 고 사망자는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겨우 1810명의 사망자가 신고되었을 뿐이다.

[출처:당진신문]

“산단 조성 갈등 최소화하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 책임져야”

공익법률센터 농본·충남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열어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2일 홍성군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때마다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산단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국가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2일 홍성군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발표 자료를 보면 충남에는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총 72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조성 중이나 조성 후에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이 24곳에 달한다.

갈등 이유는 토지 수용·보상 문제와 입주기업

수용 불가 등도 있지만, 상당수는 산단 내에 들어가는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문제다.

실제 토론회에 참여한 예산·천안·논산 등 지역 산업단지 주민 4명도 약취와 분진 등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장정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사무국장은 주장했다.

그는 “산업단지 추진 절차를 더욱 압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형식화한 법”이라며 “지금은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인·허가해줄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 논의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폐기물을 민간업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민간기업에 수집·운반부터 처분까지 맡긴 상태에서는 체계적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이 어려운 만큼 국가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보령화력 5.6호기 수명 연장? 당장 폐쇄해야”

지역 환경단체, 보령 중부발전 본사 앞 기자회견



지난 21일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은 보령중부발전 본사 앞에서 보령화력 5·6호기 폐쇄 시점이 미뤄진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 보령화력 5·6호기 수명 연장 소식에 환경단체들과 보령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은 보령중부발전 본사 앞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보령화력 5·6호기 폐쇄 시점이 미뤄진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9차 전기본에선 보령화력 5·6호기 폐쇄일정이 2025년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수명이 1년 연장돼 2026년으로 폐지가 계획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석탄 화력을 조기폐쇄해도 모자랄 판에 수명을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추교화 기후위기충남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최근 대형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함부로 쓴 탄소와 그 배출로 인한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며 “재난이 일상화돼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수명이 다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

하겠다고 한다”며 “탄소배출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은 결국 거짓이란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보령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2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낡은 화력발전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저희 아이가 열 살 다섯 살이다. 이 지구에서 살아갈 날이 많은 아이들이다.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환경부는 내일 지구의 날 이벤트로 10분간 전기를 소등한다고 한다. 지구를 생각한다면 단 하루가 아니라 매일 에너지를 줄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석탄화력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라며 “보령화력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해도 우리의 전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령 5·6호기는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환경운동연합 전국 신입활동가 연수, 당진 현장 방문

현대제철, 당진화력, 당진에코파워 등 현장 견학



지난 4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신입활동가 연수 중 당진에코파워 현장에서 김정진 사무국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들이 연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국 환경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당진을 방문했다.

20여 명의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들은 지난 25일 오후 당진을 찾아 현대제철, 당진화력, 당진에코파워 등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당진을 찾은 연수단은 먼저 현대제철 앞을 찾아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유종준 센터장의 설명을 들으며 고로제철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배웠다.

현대제철에 이어 당진화력발전소로 이동해 발전소 내부를 버스를 타고 순회하며 발전소 직원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당진화력 홍보관 소강당에서 김정진 사무국장이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30분 가량의 강의를 진행하며 탈석탄의 중요

성을 청취했다.

이어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방문해 김병빈 센터장으로부터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 이유와 주요 활동을 소개 받고 감시센터 앞에서 당진화력발전소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마지막 일정으로 당진에코파워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찾아 석탄화력발전소로 건설을 추진하던 당진에코파워가 태양광발전소로 바뀌기까지 지역의 탈석탄투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당진을 찾은 신입활동가들은 당진의 주요 환경 현장을 방문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탈석탄의 중요성과 에너지전환의 시급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다.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연수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기 화성, 충남 당진, 전북 새만금, 여수, 경주 월성원전, 경북 내성천 등 전국의 주요 환경현안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됐다. [글: 사무국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확장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테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된 대응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총리로부터 오염수투기(방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꾀하고 있는 와중에 26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 ‘한미일 정보공유 확대가 공유되는 등 3국의 단합을 공고히 할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에 살고 있는 모든 바다 생물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다가 방사성 오염수로 더럽혀질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 오염수 해양투기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출처: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환경단체 "배덕호 물관리위원장, 정권 모리배 자처하면 국민 심판"

국가물관리위 '영산강-섬진강 가뭄대책'에 환경단체 반발...
"영산강 보 활용? 자기부정"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제 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심의안건인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최대 미래 물수요를 예측, 2단계에 걸쳐 하루 61만㎥의 물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보 운영방식에서 전환하여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서 "보를 통해 확보된 물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기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상류 저수지 물을 일부 생공용수로 활용한다"고 답했다.

이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대전 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35개 환경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는 특히 국가물관리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수년간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연구결과와 경제 타당성 분석,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스스로 결정한 보 처리방안을 폐기하는 자멸적 의결"이라고 성토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1월 18일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고 그해 4월 시작했다. 그해 9월 28일, '세종보 23년 7월, 공주보 24년 10월(예타 면제시 23년 7월), 죽산보 24년 4월 착공 가능'을 골자로 중간보고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은 21년 11월 23일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협력분과 전문위원회에서도 보고됐다.

시민대책위는 "하지만 22년 6월 용역 최종결과 보고를 마쳤음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부는 '보완'을 핑계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보 처리방안을 뭉개고 있다가, 구체적인 시기를 삭제한 채 지난 4월 6일 반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면서 "보고서 공개 이틀 전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요구를 받아 가뭄대책을 언급하며 철 지난 '물그릇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가뭄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산간 농촌지역, 해안지역, 섬 지역 등 하천의 길이가 짧은 지류 지천 인근 지역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수도시설이 4대강을 끼고 있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가뭄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진단 없이, 실효성 없고 때 지난 4대강 보 '물그릇'을 거듭 언급하는 것은 무지와 무능의 결과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수질 개선 대책이 빠진 채, 보 주변 저질용수를 활용한 수량 중심의 가뭄대

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영산강은 광주하수처리수와 함께 온갖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유입되어, 승촌보와 죽산보에 이르는 물은 생공용수에 적절치 않으며, 현재도 영산강물의 96%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배덕호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스스로 심의하고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념'이 개입된 것이라며 폄훼하고, '과학적 방식 접근'의 필요를 운운하며 그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두 차례 감사를 통해 과잉 설계·공사와 과다한 사업비 문제, 수질 지표·기준의 부적절함에 대해 지적되었다. 이미 4대강 적폐의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보로 인한 체류 시간 증가가 조류 번성 등 수질 악화에 영양을 미친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3차 감사를 통해 입찰정보 유출과 담합 초래 과정에 대한 지적과,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사업이 추진되고 준설과 보 설치 규모가 확대돼 필요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됨이 지적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는 마스터플랜의 확정,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감사했다."

시민대책위는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 지적은 과학적, 정책적, 국민정서적 연속성과 타당성이 있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차 감사에서 이러한 연속성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감사원 또한 정권으로부터 독립적 감사 의무의 본분을 잊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하 생략)

[출처: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환경·노동단체 반발 확산

양대노총 "노동자들과 한마디 상의 없어" 오는 14일 기후정의파업, 탄녹위서 시작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환경, 노동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 가운데 일부는 추가 항의 행동, 법률 검토 등을 예고·진행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탄녹위에 따르면 탄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가 이날 심의·의결한 기본 계획은 애초 공개됐던 정부안과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부의 '탄소'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감축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분을 확대하는 골자를 유지했다.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됐던 CCUS와 관련해서는 '기업·출연연 참여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을 함께 공개했지만, '정부 대책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안 공개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던, '기후 위기 당사자' 의견 수렴 문제는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담겼다.

탄녹위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포함해 총 15회의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했고, 각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하지만 시민사회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중략)

오는 14일 열리는 '414 기후정의파업'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탄녹위 앞에서 기본계획 심의·의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일부 단체의 경우 탄녹위를 꾸릴 때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 등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출처:뉴시스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4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입			지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32,031,590	인건비	급여	4,600,000
회비	개인회비	4,730,000		퇴직적립금	415,28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621,940
계		4,800,000	계	5,637,22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998,450	경상비	복리후생비	41,600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117,350
계		998,45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470,140
	계	-		기타운영비	151,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780,99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110,400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50,000
	계	-		생활환경사업	62,00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1,100,710
	계	-		모금사업	-
기타수입	기타수입	32,380		연대사업	414,303
	계	32,380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	계	1,737,413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차입금	차입금	-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29,706,797
				계	29,706,797
월수입 총계		5,830,830	월지출 총계		8,155,623
수입 합계		37,862,420	지출 합계		37,862,420



4월 운영위원회 개최

4월 4일 당진환경운동연합 4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환경분과 회의

4월 21 당진시지역복지타운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환경분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RE100 동향과 당진시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4월 17일 당진시청에서 당진시의회 주최로 RE100 동향과 당진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4월 25일 사무실에서 5월호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를 열었습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따른 지역 간담회

4월 18일 당진비정규직센터 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나타난 인권조례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당진지역 시민단체가 모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연수 당진 방문

4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연수 중 당진의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당진에코파워를 견학하였습니다.



01 일반사업

- ❖ 5/02 5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5/03 윤석열 정부 1년 시민사회 평가 토론회 - 온라인
- ❖ 5/04 에코생협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5/08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캠페인 - 구터 로터리
충남 정의로운 전환 포럼 - 충남도의회
- ❖ 5/09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전력시장 세미나 - 온라인
- ❖ 5/10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전력시장 세미나 - 온라인
- ❖ 5/11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미정
- ❖ 5/15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캠페인 - 구터 로터리
- ❖ 5/16 환경의 날 기념 행사 준비 회의 - 당진상공회의소 1층
충남도 에너지위원회 회의 - 충남도청
- ❖ 5/18 5.18민주화운동 충남 기념식 - 온양온천역
- ❖ 5/19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 서천
- ❖ 5/20 지속가능상생재단 공모사업 해변환경정화활동 1회차 - 석문방조제
- ❖ 5/2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캠페인 - 구터 로터리
- ❖ 5/24 에코생협 당진점 개장 12주년 기념행사 - 에코생협 당진점
- ❖ 5/25 환경운동연합 재생에너지협의회 회의 - 온라인
- ❖ 5/30 환경연합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7차 공론장 - 온라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캠페인 - 구터 로터리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5/31(수) 11시 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새내기 회원

구경완(석문면)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광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연화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현웅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열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근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장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에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용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순영 이승호 이영길 이영수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혜슬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본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웅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용재 조한영 주영권 지광신 차기능 차일병 채남기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지용 최창용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권섭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 5월 4일 입금기준입니다.

다함께 ★ 우리 바다 쓰담쓰담★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바다는 몸살을 앓고 힘들어합니다. 바다를 지키고 깨끗한 지구의 환경을 만드는 행동에 당진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일정 |

- 당진 문예의전당 주차장(9시출발, 12시 도착)
- 봉사시간은 3시간 적용됩니다.
- 참가인원 선착순40명.
- 모자와 텀블러를 준비해주세요.
- 식사(도시락)와 간식 제공해 드립니다.
- 일정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날짜 | 2023년 5월 20일(토) 오전 9시 | 장소 | 석문방조제

| 참가문의 |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당진환경운동연합



나눔과 도움을 이어주는 정경다리.....
공익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

2023년 세계환경의날 기념 당진 환경교육 한자당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이날 만큼은 환경을 생각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가 제공되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날 짜 | 2023년 6월 10일(토)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까지

| 장 소 | 당진시청 야외공연장

| 프로그램 | 40여가지 체험부스 운영 및 기념품 제공

| 준비물 | 텀블러와 공기정화식물을 심어갈 수 있는 재활용 화분이나
빈화분(지름15cm이상) 가져오세요.